

“팔만대장경은 마음 신자 하나 본심 깨쳐 중생제도 해야”

인문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

혜암(慧菴·79) 조계종 종정 혜암이 14일 오전 7시 30분 해인총림 원당암(願堂庵)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승으로 94년, 98년의 중단 개혁불사를 이끈 스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장좌불와의 깨끗한 기품을 견지했다.

스님은 IMF관리체제와 최근의 중단사태를 언급하며 “역경이 지나간 후 에 좋은 일이 오는 법이니 슬기롭게 극복해나기만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 발심해서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의미로 열린 기자회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수가 태산만하면 성공도 태산 고난 회피 말고 선물처럼 반길것

“종정 예하에서 취임하면서 내린 교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중단이 혼란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막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율을 엄정하게 지켜서 승가의 본분을 다하지는 의미에서 ‘지계정정(持戒淨正)’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중단의 바른 가풍을 드러내자는 ‘종풍선양(宗風宣揚)’,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전법도생(傳法渡生)’을 당부했습니다.

“종정에 추대된 이후 생활에 변화가 온 것은 없습니까?”

▲저는 가능한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부처님 집안법회에는 종종 갑니다. 큰스님이 점안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느냐고 조르는 경우가 많아 가게 되는데, 앞으로는 사양할 방침입니다. 종정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남은 여성을 토굴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스님의 평소 일과가 궁금합니다.”

▲나는 재가불자들과 함께 선불당(選佛堂)에서 밤새 정진합니다. 선불당은 동·하안거에는 1백여명이, 불가를 산철에는 20~30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정진하는 대종선방인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입제·결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예불을 올리고 아침 7시경에는 목욕을 합니다. 공양은 오전 10시경 하루 한끼만 먹습니다. 오후에는 운동삼아 도량을 돌며 풀을 뽑거나 청소합니다. 저녁에는 초소인 열화실에 잠깐 둘러 우편물등을 점검하고 다시 선불당을 향하는데 장좌불와를 계속 하다보니 취침과 기상시간이 따로 없게 되었습니다.”

“불교수행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님께서는 돈오돈수의 가풍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간명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합치면 마음 심(心)자 하나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본심을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 외에는 다 외도입니다. 일체중생을 떠나 다생부모가 없고 다생부모를 떠나 일체중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견성하면 곧 다생부모를 건지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입니까?

일부서 공부하다 우리나라에 돌아온



○14일 해인사 원당암 뜰을 거니는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 “본심을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불교수행의 궁극”이라며 “낯인지만 모를 정도로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 제방의 선지식을 닦는대로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가는 곳마다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돈오점수법(頓悟漸修法)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성철스님과 그 도반인 향곡스님만은 돈오돈수법(頓悟頓修法)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중이 생겨 마조나 백장, 황벽스님들의 어록을 살펴보니 단박에 깨쳐 부처를 이루는 돈오돈수법이 바른 법이요, 점수법은 소승법이고 방편법이며, 교는 장엄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돈수법은 일언지하에 돈망생하는 법이요, 일초직입여래지의 가르침입니다.

“평소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5가지 계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소식(小食)이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는 용맹정진을 주문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수지맞는 일종의 하나가 공부하다 죽는 일인데 목숨내놓고 정진하다보면 견성이 가까워지고 죽음은 멀어집니다. 견성하면 생사를 넘어서는 깨달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고양이 쥐를 잡듯 사무치고 간절하게 정진해서 낯인지 밤인지, 밥을 먹었는지 건너뛰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진해야 합니다.

셋째는, 안으로는 본심을 깨달고 밖으로는 남을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참선공부하는 것과 남을 돕는 일뿐입니다. 넷째, 주지 등의 소임을 가급적 맡지 말고 합니다. 차별적으로 보면 각자의 소임이 다 있어야 하지만 소임을 맡다보면 공부는 온데간데 없고 짐작하게 되니 멀리 하라는 겁니다. 천하총림이 다 망해도 눈하나 꿈쩍하지 말고 내 공부만 할 것을 당부합니다. 소임을 살더라도 공행(空行)을 닦아야 합니다. 가도 가는 바 없이 가고 먹어도 먹는 바 없이 먹으면서 해도 하는 바 없이 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청빈하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출가수행자들은 원래 탁발하면서 공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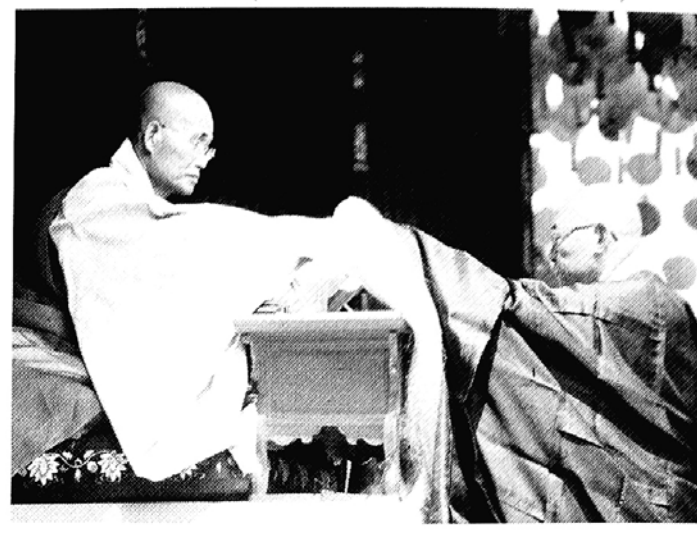
“장좌불와를 하계된 계기는.”

▲행자시절에 옛 어록을 보니, 근기가 뛰어난 자는 7일만에 견성할 수 있다고 해요. 그 길로 공양주노릇 쫓겨치고 토굴로 들어갔습니다. 용맹심을 내어 일주일간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채 정진을 했어요. 그런데 1주일이나 지나도 별다른 경치가 열리지 않으니 다시 1주일간 장좌불와를 했고 또 1주일, 1주일하다가 어느덧 50여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젠 늙고 싶어도 불편해서 눕지 못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한 말씀 내려 주십시오.”

▲사람 몸받기 어려우니 부디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지난 후에 즐거운 일이 오는 법이니 어려움을 열심히 극복해나기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이나 재앙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실수가 주역만 하면 성공도 허공만 한 법입니다. 역경이 들수록 성공도 큰 법입니다. 고난이 닦치면 회피하지 말고 좋은 선물이 왔다고 반길 일입니다. 지난 중단사태도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11일 중정추대식에서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이 조계종 10대 중정 혜암스님에게 법의 상징인 불자(拂子)를 봉정하고 있다.

한번 주장자 치니 진망이 무너지고 산 눈을 떠보니 모두 화장세계로다

혜암종정 취임영어

(上堂 卓拄杖一下)
拘束元來非我意 隨緣處處是吾家
世事已空浮世外 難避事清正若何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구속됨이 원래 나의 뜻이 아니기에 인연따라 곳곳이 나의 집이었는데 세사사를 벌써 든 구름밖에 보냈지만 피하기 어려운 사정에는 어쩔 수 없네

리니
해와 달과 별들이 고금에 빛이 나도다

(舉拈 拂子云)
爾有拂子 與爾拂子
爾無拂子 尙爾拂子
(불자를 들고 말하되)
그대에게 불자가 있으니 그대에게 불자를 주고
그대에게 불자가 없으니 그대에게 불자를 빼앗는다

天下萬物無非佛 世上萬事無非道
深谷流水誦藏經 山上石佛微微笑
삼라만상이 부처 아님이 없고 모든 일이 도 아님이 없음이라 깊은 산골짜기 흐르는 물은 법을 설하고
산봉우리 석불은 빙긋이 웃네

佛祖 拂子 卽不問 且道
這介拂子 畢竟甚??處?
불조의 불자는 묻지 않거니와 일러보시오
이 불자는 필경 어느 곳에 떨어져 있습니까?

一打拄杖 眞安壞 活眼無邊春
一喝一聲大 門閉 日月星輝猶古
한 번 주장자를 치니 진망이 무너지고 산 눈을 떠보니 모두 화장세계로다 한 번 할을 하는 소리에 하늘문이 열

舉拈拂子 天地壞 千門萬戶 盡豁開
불자를 들어 보임에 천지가 무너지니 천문만호가 모두 활짝 열리네 아아~
불기 2543년 5월 11일

종정 추대법요 이모저모

○...혜암스님은 추대식이 열리기 2시간 30분 전인 11시 30분에 조계사에 도착. 비행기편으로 상경한 혜암스님은 총무원이 마련한 승용차로 김포공항에서 총무원으로 이동했으며,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청사 앞에 미리 나와 혜암스님을 맞이했다. 고산스님이 “먼길 오시게 해서 송구스럽다”고 인사를 건네자 혜암스님은 고산스님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요”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악” 할 3천대중 압도

○...“자 여기를 보시오” 혜암스님은 법어에 앞서 “기운차게 말하고 싶은데

목이 아파 말이 잘 안나옵니다”라고 말한 후 약간 큰 목소리로 법어를 읽어내려갔다. 불자와 법장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오른손으로 불자와 법장을 높이 들어 올리기도 했다. 약간 큰 목소리였지만 마지막 ‘아악~’ 할 때 무뎠던 목소리로 장내에 운집한 대중들을 압도. 이날 법요식에는 스님 8백, 조계사 쌍계사 해인사 신도 등 3천여명이 운집. 일부 신도들은 일제같이 종각에 올라 자리를 잡기도.

○...행사를 주관한 총무원은 이날 아침부터 조계사 경내의 차량 진입을 막아 모처럼 탁트인 경내를 만들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국국악관현악단과 조계사 합창단도 행사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나와 ‘꽃으로 앉으신 님’ 등을 연습하며 추대식의 음상장엄을 준비. BBS와 btm은 이날 50여분에 걸쳐 추대식 실황을 전국에 생중계했다.

성철스님 쓰시던 불자 사용

○...종정 혜암스님에게 봉정된 불자와 법장은 전 종정 성철스님이 쓰시던 것. 통도사에서 전래로 중정추대식에 봉정하던 불자와 법장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고 밝힘에 따라 중정추대위원회는 성철스님의 유품을 새로운 전래품으로 정했다. 혜암스님의 법어 중 “그대에게 불자가 있으니 그대에게 불자를 주고, 그대에게 불자가 없으니 그대에게 불자를 빼앗는다. 불조의 불자는 묻지 않거니와 일러보

시오. 이 불자는 필경 어느 곳에 떨어져 있습니까?”라는 내용을 두고 한 불자는 “통도사에서 일갈하는 의미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종정 추대식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정화회의에서는 종로경찰서에 조계사 일주면 건너편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집회신고서를 접수. 그러나 종로에서 같은 시간 행사가 열려 불가하다고 통보. 호법부 스님들은 조계사 주위와 인사동을 순찰하며 정화회의측 동향을 감시. 정화회의는 이날 ‘중정 월하’라는 주장서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한 불자는 “경엄하고 겸손한 추대식 있다. 추대식을 계기로 중단의 긴장관계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한다.

불자와 법장 선수행 상징-전법의 증표

선종에서는 불자(拂子)와 법장(法杖)을 선수행 지침의 상징으로 여겼다. 전법의 증표로 사용되기도 했다. (조당집)에서 혜능대사가 한 스님에게 불자를 세워주고 거둬 “보았느냐”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전종록)에도 “옛 사람이 방망이를 들거나 불자를 세운 뜻은 무엇입니까?”는 내용이 있다. 불자는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번뇌를 털어내는 상징적 의미의 법구로 불진(拂塵)이라고도 불렀다. 짐승의 털이나 삼(蔴) 등을 묶어서 자루 끝에 맨

것으로 원래는 벌레를 쫓는 데 쓰는 생활용구였다. 불가에서는 흰 말의 꼬리로 만든 백불(白拂)을 귀히 여긴다. 중국에서는 특히 선종의 장엄구로서 수좌 또는 주지가 불자를 잡고 법좌에 올라 대중에게 설법을 했다. 이를 병불(秉拂)이라고 한다. 주장자라고도 불리는 법장은 선사들이 좌선이나 설법할 때 지나는 지팡이다. 의출할 때도 지니고 다니며 위협에서 몸을 지키는 도구로 썼다. 상단을 정두(淨頭), 하단을 축두(觸頭)라고 한다.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 날

안정과 화합으로 세상을 따스하게

대한불교조계종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 땅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화합과 공생의 자비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중단없이 정진할 것입니다.

종	정	혜	암
원	정	탄	성
총	무	원	장
중	앙	종	회
호	계	원	장
교	육	원	장
포	교	원	장

불기 2543년 5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